녹록치 않은 종전의 길, 메모리·테크 악재 겹치며 증시 약세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종전 불확실성과 기술주 불안에 증시 낙폭 확대

- 미 증시는 DOW -1.01%, S&P500 -1.74%, NASDAQ -2.38% 기술주 중심의 약세
- 종전 불확실성 재차 확대, 국제유가 WTI, Brent 각 +2%대 상승. 국채금리 상승 10Y +8.7bp, 2Y +10.1bp. 달러인덱스 99.7 강세 지속
- 기술주 관련 악재: 전일 구글 '터보퀀트' 발표로 메모리반도체 수요 우려 지속, 메타·구글은 SNS 중독 소송 패소 영향 약세. 미 하원 칩 보안법 통과도 AI 반도체 투자심리 압박

종전 난항, 다만 한차례 더 유예된 에너지시설 공격

- 종전합의안에 대해 이란이 거절 및 역제안에 나선 데 이어,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징수 법안을 준비. 전쟁비용보전과 안보유지 명목의 선박 1 회 통행료는 약 200 만 달러로 언론 추산
-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불확실성 확대. 이란의 결단을 촉구하며, 합의안 거부시 강력한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을 시사. 앞서 '이란의 선물'은 파키스탄 유조선 10 척 통과 건으로 밝혀짐
- 다만, 장마감 후 트럼프대통령은 이란 에너지시설 공격 유예기간을 10 일간 추가 유예조치하겠다 밝히며 국제유가 소폭 완화

OECD 의 전쟁발 물가↑, 성장↓ 우려

- OECD 중간경제보고서, 전쟁 여파로 미국 인플레 4.2% 전망. G7 국 중 가장 큰 폭. G20 인플레 4.0% 전망.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이 중요 변수로 지목되었으며, 원유, LNG, 비료 등 언급. 미 경제성장률 '26 2.0%, '27 1.7% 전망. 글로벌성장률 '26 2.9%, '27 3.0% 전망
- 30 일 G7 재무·에너지·중앙은행 통합 화상회의 소집 예정.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 논의를 위한 것으로, 중앙은행은 첫 참여
- 주간 신규 실업청구건수는 21 만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으나 예상치 부합
  미 30 년 고정 주담대금리 6.38%, 중동전쟁 여파로 6 개월만에 최고수준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-4.1%	미 하원 외교위원회 반도체보안법 통과 소식에 주가 하락. 슈퍼마이크로컴퓨터(-7.7%)의 대중국 밀반입 의혹 이후 AI 반도체의 대중국 밀반입 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법. 법안은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 설계사들에게 자사 제품의 유통 경로 및 최종 사용자 실사 의무를 부과, 위반 시 상무부 보고를 강제함. 이에 반도체 섹터 내 규제 리스크 고조
MU	마이크론	-7.0%	전일 터보퀀트발 메모리 수요둔화 우려에 주가 하락. 메모리 사용량이 6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샌디스크(-11.0%), 씨게이트(-8.3%) 등 메모리주 동반 하락
AAPL	애플	+0.1%	차세대 운영체제 iOS 27에서 Siri를 외부 AI 어시스턴트에 전면 개방하여 아이폰의 AI 플랫폼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. 기존 챗GPT 외에 제미나이, 클로드 등 경쟁 서비스와의 통합을 허용함으로써 앱스토어 구독 수익 증대와 AI 시장 내 경쟁력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. 한편 골드만삭스는 OpenClaw 등 자율형 AI 에이전트의 확산이 고성능 PC 하드웨어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, 애플을 핵심 수혜주로 제시하며 매수 의견 유지
META	메타	-8.0%	전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앱을 중독적으로 설계해 미성년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하며 주가 하락. 법원은 기업 측에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총 $6M 지급 명령. 이번 판결은 플랫폼 설계 방식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, 향후 유사 소송 확산 및 법적 비용 증대 우려 확대